

##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수 현                      김 동 민                      서 영 석<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경험수준이 상담자의 공감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광주지역에서 상담 수련중이거나 상담심리사(1,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153명의 피검자들이 성인애착질문지, 정서적 공감 검사를 각각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공감적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둘째, 상담자의 애착유형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수련경험이 중재하는지, 셋째, 상담자의 애착유형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중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애착이 상담자의 정서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담수련경험과 상담자 발달수준은 애착유형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의 불안애착이 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 및 훈련과 수퍼비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착유형, 상담 수련경험, 상담자 발달수준, 공감

---

<sup>†</sup> 교신저자 : 서영석,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E-mail : seox0004@nate.com

Rogers(1957)가 효과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하나로 상담자의 공감을 제시한 이래 공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Feller & Cottone, 2003). 그 동안 수행된 연구들은 공감이 내담자 이해 및 성장촉진을 위해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태도 또는 기술이며 상담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Carlozzi, Bull, Eells, & Hurlburt, 1995; Peabody & Gelso, 1982). 이러한 이유로 공감은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초점이 되어왔다(Lyons & Hazler, 2002).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공감은 관찰된 공감(Truax & Carkhuff, 1967) 또는 지각된 공감(Barrett-Lennard, 1982)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공감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실제 공감에는 이러한 측면 외에도 개인의 성격이나 지속적인 성향으로 파악되는 측면이 존재한다(Mehrabian & Epstein, 1972). 이러한 측면의 공감은 '성향적 공감'(Duan & Hill, 1996) 또는 '특성 공감'(Steibe, Boulet & Lee, 1979)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알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일반적 성향을 의미한다(박성희, 2004).

성향적 공감은 초기 아동기의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요컨대, 양육자와의 강한 애착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에 덜 집착하게 하여 타인의 욕구에 더욱 민감해 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Barnett, 1987). 최근의 성인애착 연구자들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양육자와의 애착이 이후 타인 및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이어지며, 이 내적 작동모델은 공감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on, 1992). Bartholomew 등(1991)은 성인 애착이 불안과 회피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불안과 회피가 모두 낮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안전(secure)애착 유형이다. 둘째 유형은 불안은 높고 회피는 낮은 자기집착(preoccupied) 유형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유형은 불안은 낮고 회피는 높은 거부적 회피(dismissing-avoidant)유형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유형은 불안과 회피가 모두 높은 두려움 회피(fearful avoidant)유형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유형 분류에 따라 Pistole(1999)은 안전 애착유형에 해당하는 상담수련생은 매우 높은 수준 정서적 공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기 집착 및 거부적 회피와 두려움 회피유형의 상담 수련생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집착 유형에 해당하는 상담 수련생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정서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공감을 보이며, 거부적 회피와 두려움 회피유형의 상담 수련생은 거리두기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적 공감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Pistole(1999)의 추론에 따르면, 불안과 회피는 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회피는 공감능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Trusty, Ng & Watt, 2005).

한편, 상처를 가진 치료자 패러다임(wounded-healer paradigm)을 따르는 연구자들(Miller & Baldwin, 1987, 2000; Wolgien & Coady, 1997)은 안전 애착이 효과적인 상담과 공감을 위한 최

선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처를 가진 치료자 패러다임은 회피가 효과적인 상담에 해롭다는 점에서는 애착이론과 일치하지만, 불안이 상담자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애착이론과 상치된다. 상처를 가진 치료자 패러다임은 효과적인 상담자들 중에는 내적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상처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통합된 자기인식(awareness)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처에 대한 자기인식이 내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조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Miller et al, 1987).

최근 몇몇 경험적 연구들은 상담자의 불안(애착)이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상처를 가진 치료자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Dunkle & Fridelander(1996)는 73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치료자의 상담경험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성인애착이론의 예언과는 달리 상담자의 불안애착유형은 상담자-내담자 유대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피가 높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낮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적 경험을 연구한 Sealre & Meara(1999)는 안전 유형 보다는 자기 집착 유형의 대학생들이 감정에 더 집중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Trusty 등(2005)은 143명의 상담수련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적 공감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불안이 높을수록 그리고 회피가 낮을수록 공감 성향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애착이론의 예언과는 달리 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애착유형의 상담자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

의 공감적 성향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최소한 불안이 상담자들의 정서적 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안정애착유형이 높은 수준의 상담기술과 관련된다는 기존의 주장에 도전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Wilcoxon, Walker와 Hovestadt(1989)는 초기 가족 경험에서 낮은 자율성과 친밀감을 경험한 상담자일수록 높은 대인관계-촉진 기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Watts, Trusty, Canada, & Harvill(1995)은 유능하게 평가된 상담수련생이 덜 유능하게 평가된 상담수련생보다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Rønnestad & Skovholt(2001)는 박사과정을 마친 후 상담경험이 평균 37.6년이 되는 12명의 상담자를 면접한 결과, 공통적으로 초기 삶의 경험이 상담자라는 전문직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기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자가 경험한 개인적 고통이 치유되고 통합되면 내담자를 조력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ordin, 1979; Orlinsky & Howard, 1986).

그러나 Rønnestad 등(2001)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의 대상들이 대부분 초보 상담자라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초보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수련은 대개 상담의 초기 단계에 초점을 둔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내담자의 정서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내담자의 정서에 대한 높은 관심은 때때로 상담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 Pistole(1999)은 특히 불안이 높은

자기집착 애착 유형의 수련생들이 내담자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정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경우, 자기집착 유형 상담자의 높은 공감적 성향은 상담자로서의 객관성 상실 또는 정서적 혼미(enmeshed)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경험적 증거들이 반드시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은 상담자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자기인식을 갖게 되면 내담자의 고통에 더욱 공감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초보 상담수련생 보다는 전문가의 공감적 성향이 높아야 한다.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상담, 집단참여 경험, 슈퍼비전 등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애착이론에서는 상담자의 수련을 통한 공감적 성향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부정한다. 공감적 성향을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이미 결정된 고정적 특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이 먼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의 주장(tenect)은 초보 상담수련생만이 아니라 상담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상담자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완전한 검증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과 공감적 성향에 대한 두 이론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1)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공감적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2) 상담자의 애착유형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수련경험이 중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상담자의 애착유형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중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상담수련을 받고 있거나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 부여하는 상담심리사 1급, 2급 자격을 취득한 총 153명(남자 17명, 여자 136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7-8월에 걸쳐 서울, 경기, 광주에 있는 대학상담소 9곳, 청소년 상담실 5곳, 시설상담소 4곳에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송하여 208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무성의하게 응답했거나 비상담 전공자가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53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에 요약한 것처럼,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에 걸쳐 분포되었고 30대가 가장 많았다. 기혼상담자가 미혼상담자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석사학위를 가진 상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상담자의 수련경험수준을 살펴보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가 67%를 차지하였고, 사례경험은 50사례이하인 상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인 슈퍼비전을 받은 횟수는 10회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회 이하라고 보고한 상담자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자격증 소지여부와 종류에 따라 상

표 1.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및 경험수준

개인특성 및 경험수준		구 분	n (%)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성별 (n=153)	남자	17 (11.1%)	
		여자	136 (88.9%)	
	나이 (n=153)	20대	41 (26.8%)	
		30대	79 (51.3%)	
		40대	29 (19.3%)	
	결혼상태 (n=152)	미혼	4 (2.6%)	
		기혼	74 (48.4%)	
	학력 (n=153)	석사과정및 수료	78 (51%)	
		석사졸업	16 (10.5%)	
		박사과정및 수료	87 (56.9%)	
박사졸업		36 (23.5%)		
상담자 발달수준	자격증유무 (n=153)	상담심리사1급	14 (9.2%)	
		상담심리사2급	41 (26.8%)	
		없음	62 (40.5%)	
상담자 경험수준	상담사례 수 (n=133)	1-10사례	50 (32.7%)	
		11-50사례	33 (24.8%)	
		51-100사례	49 (36.9%)	
		101-300사례	23 (17.2%)	
		301-2000사례	20 (15.1%)	
		개인 수퍼비전 횟수 (n=145)	0-10회	8 (6.0%)
			11-30회	71 (49.0%)
31-50회	35 (24.1%)			
51-100회	24 (16.6%)			
101회-200회	12 (8.2%)			
		3 (2.1%)		

담경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담자의 경험수준에 따라 상담사례 수와 개인 수퍼비전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담심리사 1급을 소지한 상담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높고 상담사례 수와 개인 수퍼비전 횟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자격증에 따라 상담 사례수와 수퍼비전 횟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례 수와

표 2. 자격증에 따른 상담경험의 차이 비교

자격증구분(N=153)	나이(M)	상담사례 수(M)	개인수퍼비전 경험(M)
상담심리사1급(n=41)	41.32	261	58.42
상담심리사2급(n=62)	33.31	71.48	16.22
없음(n=50)	31.18	23.57	10.40

개인 수퍼비전 횟수를 상담 수련경험수준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즉, 상담사례 수와 개인 수퍼비전 횟수가 많을수록 상담 수련경험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담자 발달 수준은 상담심리사 1,2급 자격증 유무로 구분하였다.

### 측정도구

#### 성인에착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의 성인에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ECRS(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를 사용하였다. ECRS는 3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의 “성인에착의 자기보고형 측정에 관한 통합적 개관”에서 소개된 것을 사용하였다.

Brennan 등(1998)은 14개의 자기보고식 애착 측정 도구(60개의 하위척도와 323문항)를 통합하여 482개의 문항을 추출하였고, 비슷한 문항의 중복정도를 평가하여 최종 60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회피와 불안이라는 두 개의 독립요인이 산출되었는데, 불안하위척도(18문항)는 거절과 포기, 몰입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했고 회피하위척도(18문항)는 의존성 또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했다. ECRS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회피차원 .94, 불안차원 .91로 보고되었는데(Brennan et al, 1998), 한국에서는 황경옥(2001)이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회피차원 .60, 불안차원 .86을 보고하였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회피 .75, 불안 .84로 나타났다.

#### 공감수준

참여자들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 Mehrabian et al, 1972)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공감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양화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이다.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8개의 문항이 부정적 진술문으로 되어있다. 원래 이 검사는 9점 리커트형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공감도구는 애착과 정서적 공감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종종 사용되어왔고(Barnett, 1987), 이 검사도구가 측정하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상담자의 상담기술발달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Ridgway & Sharpley, 1990). 정서적 공감도구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84로 보고되었으며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Mehrabian et al, 1972).

우리나라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자(김성일, 1998; 김지현, 2002)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재 타당화 작업을 실시한 후 총 33문항 중 4문항<sup>1)</sup>을 제외한 29문항을 사용하였다. 4문항의 제외근거는 문항반응모형이론에 근거해서 적합도 지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신뢰도는 .719로 나타났다(설현수, 김동민, 이수현, 2005, 미발행).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성인애착 유형이 공감 성향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주된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이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라 공감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상담자의 발달 수준을 수련생과 전문가로 나누는 더미(dummy) 변인을 생성하였다. 이 더미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상담자의 공감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상담자의 애착유형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수련경험이 중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로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과 회피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개인수퍼비전 시간 및 상담사례 수를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애착유형과 상담수련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애착유형과 공감 성향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 및 회피 그리고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나타내는 더미 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불안 및 회피와 발달수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로 공감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심리사 1급과 초보 수련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급 자격증 소지자와 초보 수련생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차이의 방향이 예상과는 달리, 수련 수준이 낮을수록 공감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문가 집단의 불안 및 회피 점수가 초보 수련생 및 2급 자격증 소지자들 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단계로 불안 및 회피가 투입되고, 2단계로 더미 변인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집단과 초보 수련생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사라졌다. 불안과 회피는 공감 성향 변량의 약 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제 후 집단 간 차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약 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의

표 3. 상담자 발달 수준별 공감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비 교	B	SE	t
심리사 1급 vs 자격증 없음	-3.662	1.116	-2.203*
심리사 2급 vs 자격증 없음	-2.540	1.500	-1.694

\* p < .05

1) 제외문항: 9, 23, 29, 33번

표 4.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자격증 유(1급, 2급)무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예언변인	B	SE	t	$\Delta R^2$	F (df <sub>1</sub> , df <sub>2</sub> )
1	회피	-.223	.103	-2.173*	.063	4.627* (2, 138)
	불안	.234	.086	2.712**		
2	회피	-.223	.102	-2.175*	.025	1.842 (2, 136)
	불안	.222	.087	2.564*		
	심리사1급 vs 자격증없음	-3.108	1.695	-1.833		
	심리사2급 vs 자격증없음	-2.150	1.543	-1.393		

\*  $p < .05$ . \*\*  $p < 0.01$ .

예언과 일치하게 회피는 공감 성향에 부적 영향을 그리고 불안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상담자의 애착유형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수련경험이 중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애착유형을, 2단계에서는 상담경험을, 그리고 3단계에서는 상담경험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를 회귀모형에 첨가하였다. 3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2단계까지만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 1에서는 상담자의 애착유형이 공감수준의 변량을 4.5% 설명하였고, 불안애착이 공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자의 경험수준이 첨가된 모형 2에서는 전체 설명량이 6.6%로 2.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예언변인	B	SE	t	$\Delta R^2$	F (df <sub>1</sub> , df <sub>2</sub> )
1	회피	-.174	.112	-1.550	.045	2.736 (2, 117)
	불안	.208	.095	2.201*		
2	회피	-.166	.112	-1.477	.021	1.300 (2, 115)
	불안	.203	.095	2.134*		
	상담사례수	.004	.004	.996		
	개인수퍼비전	-.047	.031	-1.506		

\*  $p < .05$

표 6. 상담자 발달 수준이 애착유형과 공감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예언변인	B	SE	t	$\Delta R^2$	F (df <sub>1</sub> , df <sub>2</sub> )
1	회피	-.223	.102	-2.175*	.088	3.263* (4, 136)
	불안	.222	.087	2.563*		
	심리사 1급 vs 자격증 없음	-3.108	1.695	-1.833		
	심리사 2급 vs 자격증 없음	-2.150	1.543	-1.393		
2	회피	-.134	.196	-.682	.014	.532 (4, 132)
	불안	.207	.140	1.479		
	심리사 1급 vs 자격증 없음	4.862	14.214	.342		
	심리사 2급 vs 자격증 없음	.252	12.933	.019		
	자격증 유(1급)무 집단 vs 불안	-.202	.246	-.821		
	자격증 유(2급)무 집단 vs 불안	.120	.194	.616		
	자격증 유(1급)무 집단 vs 회피	.031	.292	.106		
	자격증 유(2급)무 집단 vs 회피	-.177	.246	-.719		

\*  $p < .05$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애착유형과 공감 성향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 및 회피, 상담자의 발달수준, 그리고 불안 및 회피와 발달수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항으로 구성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불안 및 회피와 공감 성향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논 의

심리치료의 성공여부를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것이 치료적 관계이고(Rogers, 1957), 치료

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공감적 태도이다(Bohart & Greenberg, 1997). 이렇게 상담실제에 있어서 공감의 치료적 가치는 상담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상담자의 공감능력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변인을 밝히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 애착의 두 차원 중 하나인 회피는 공감적 성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하나인 불안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초보 상담수련생에 국한 되지 않으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되는 결과이다. 또한 불안과 회피가 공감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 발달 수준의 증재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애착(낮은 불안, 낮은 회피)인 상담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공감성향을 갖고 있다는 애착이론의 가정(Lopez & Brennan, 2000; Pistole & Watkins, 1995) 보다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공감 성향이 높다는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과 일치한다. 또한, 비록 공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불안애착이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며(Mallinrodt, Coble & Gantt, 1995), 작업동맹 지각에 있어 안전애착 상담자와 불안 애착 상담자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수정, 2005)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불안애착이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하는 방해요인이 아니라는 주장(Miller et al, 2000; Wolgien et al, 1997; Searle et al, 1999; Trusty et al, 2005)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불안애착을 형성한 상담자는 애착유형 형성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고통을 오히려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여 내담자의 문제나 경험을 더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초보 상담수련생의 경우 불안애착에 기반한 높은 공감적 성향이 때때로 내담자와 정서적 융합(enmeshed) 또는 객관성의 상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수련한 전문 상담자의 경우에도 불안이 공감 성향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을 가진다는 결과는 불안 애착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전문 상담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상담자의 공감 성향에 불안과 회피가 기여하는 것 외에 상담 훈련의 정도가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과 회피의 영향을 통제된 후 공감성향에 대한 상담자 발달수준별 집단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서도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을 전공하거나 상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경험을 통해 공감적 성향의 정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담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같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는 공감성향이 성격적 특성(trait)에 가까운 것으로 상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결과는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보다는 애착이론의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불안 애착은 상담자의 공감적 성향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의 기본적 함의와 일치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담수련과정이 공감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은 불일치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결과는 상처를 가진 상담자 패러다임의 기본적 함의(tenet)를 재해석할 필요를 제기한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면, 상담수련 과정을 통해 향상되는 것은 정서적 공감과 같은 특성적 요인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 또는 의사소통 과정에 나타나는 관찰된 공감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의 공감에 대한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개관한 박성희(2004)도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추가적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투입된 상담자 수련경험 변인인 개인수퍼비전 시간 및 상담사례 수가 다양한 상담자 수련경험 변인들 중 일부에 국한된 것이어서 또는 수련경험을 대표하기에 부적절한 것이어서 공감 성향에 대한 설명력이 미미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에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에서의 학생 선발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대학원 수준에서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선발은 체계적 연구결과에 따른 객관적 기준 하에 실시되기 보다는 전공교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자와의 짧은 상호작용에 따른 상담전공 교수의 주관적 판단이 반드시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판단을 보완하는 객관적 방안이 또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상담전공 대학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의 유형을 측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에 기반한 애착 유형 지원자가 안전 애착 유형의 지원자 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과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다면, 이들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공감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수퍼비전의 분위기나 수퍼바이저의 태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수퍼비전을 받더라도 공감 성향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상담자의 공감능력 발달에 수퍼비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상

담수련생들은 서구의 상담수련생에 비해, 수퍼바이저와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관계에서 더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수퍼바이저에게 복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손승희, 2004)는 수퍼비전의 효과 측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애착이론과 상처를 가진 상담자 개념은 모두 상담 수련생들의 불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민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 볼 수 있다. 즉, 수퍼바이저는 상담 수련생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지지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담 수련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나아가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긍정적인 작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Trusty et al, 2005). 따라서 수퍼바이저는 수련생들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개인적 고통이 내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불안을 탐색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한 부분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수퍼바이저는 전통적 모델에 따른 교육적, 훈육적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빈번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일 (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 공감 발달. *청소년학 연구*, 5(1), 21-51
- 김성일 (200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과 공감 발달. *교육학연구*, 41(3), 167-190.
- 김수정 (2005). 상담자, 내담자 애착유형이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2002).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고독 및 공

- 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설현수, 김동민, 이수현 (2005). Mehrabian & Epstein의 공감척도 타당화. 한국교육평가 연구. 미발행
- 손승희 (2004). 개인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ne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 in Child,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46-16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artholomew, K., & Hoor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hart, A. C., & Greenberg, L. S. (1997). *Empathy reconsidered*.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tion of the psychotherapy concept of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260.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J.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75.
- Carlozzi, A. F., Bull, K.S., Eells, G. T., & Hurlburt, J. D. (1995). Empathy as related to creativity, dogmatism, and expressiveness. *Journal of psychology*, 29, 365-373.
- Duan C., & Hill, C. E. (1996). The Current State of Empath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61-274.
- Dunkle, J. H., & Fridelander, M. L. (1996). Contribution fo therapist experien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o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456-460.
- Feller, C. P., & Cottone, R. R. (2003). The Importance of Empathy in the Therapeutic Allianc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2, 53-61.
- Lopez, F. G., & Brennan, K.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Lyons, C., & Hazler, R. J. (2002). The Influence of Student Development Level on Improving Counselor Student Empath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2, 119-130.
- Mallindrodt, B., Coble, H., & Gantt, D. L. (1995). Attachment pattern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Development of the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2, 307-317.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ler, G. D., Baldwin, D. C., & Jr. (1987). Implications of the Wounded-Healer Paradigm for the Use of the Self in Therapy. *Journal of Psychotherapy & the Family*, 3, 139-151.
- Miller, G. D., Baldwin, D. C., & Jr. (2000). Implications of the Wounded-Healer Paradigm for the Use of the Self in Therapy. In M. Baldwin(Ed.), *The use of self in therapy* (2nd ed., pp.243-261). New York: Haworth.
- Olinsky, D. E., & Howard, K. I. (1986).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pp. 311-381). New York; Wiley.
- Peabody, S. A., & Gelso, C. J. (1982).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240-245.
- Pistole, M. C. (1999). Caregiving in Attachments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o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7-446.
- Pistole, M. C., & Watkins, C. E. Jr. (1995). Attachment theory counseling process and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57-478.
- Ridgway, I. R., & Sharpley, C. F. (1990). Multiple measures for the prediction of counselor trainee effectiveness.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24, 165-177.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1). Learning area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Retrospective accounts of senior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32, 181-187.
- Sea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147-158.
- Steibe, S. C., Boulet, D. B., & Lee, D. C. (1979). Trainee trait empathy, age, trainer, functioning, client age and training time as discriminators of successful empathy training. *Canadian Counsellor*, 14, 41-46.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Client and therapist transparency in the psychotherapeutic encou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3-9.
- Trusty, J., Ng, K. M., & Watt, R. E. (2005). Model of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emotional empathy of counseling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 66-77
- Watts, R. E., Trusty, J., Canada, R., & Harvill R. L.(1995). Perceived early childhood family influence and counseling effectiveness: An exploratory stud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 104-110.
- Wilcoxon, C. S., Walker, M. R., & Hovestadt, A.

J. (1989). Counselor effectiveness and family-of-origin experience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ounseling and Values*, 33, 225-229.

Wolgien, C. S., & Coady, N. F. (1997). Good therapist's belief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ir helping ability: The Wounded Healer Paradigm Revisited. *The Clinical Supervisor*, 15, 19-35.

원 고 접 수 일 : 2005.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6. 2. 31

계 재 결 정 일 : 2006. 5. 2

K C I

## The Effects of Counselor' Attachment Styles and Counseling Experiences on Empathic Ability

Su-hyun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ng-min Kim

Chung-ang University

Young-Seok Seo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ounselors'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unseling experiences affect their empathic ability.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53 counseling trainees and counselors. They were asked to rate the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 and the Emotional Empathy Measu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see whether counselors' attachment styles and counseling experiences affect their empathic ability and also whether counseling experiences mediate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n empathic disposition. We found that counselor's anxiety attachment positively influenced their empathic disposition, but that other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ounselor training and supervision.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tyle, counseling experience, empathy